

日帝下の 公共圖書館에 관한 研究

金 抱 玉*

〈目 次〉

- | | |
|-------------------------------|---------------------------|
| I. 序 論 | IV. 植民地下 各 公共圖書館의 實態分析 |
| II. 合併以前の 近代公共圖書館 運動의 概況 | V. 結 論 |
| III. 日帝下 近代公共圖書館의 設立과 그 性格 | |

I. 序 論

本 研究의 目的은 첫째, 公共圖書館을 中心으로 韓國의 近代圖書館 運動의 本質과 性格을 먼저 살펴 보고, 둘째 日帝下の 公共圖書館들이 어떻게 設置되어 왔는가 그 狀況을 社会教育史的 또는 圖書館史的인 側面에서 검토 분석하여 그 實態와 性格을 살펴 보고 동시에 그것이 오늘날 우리 손에 의해 運營되고 있는 現圖書館界의 發展에 어떠한 影響을 미치고 있는가에 관한 内容들을 요약, 기술해 보고자 한다.

研究方法은 日帝當時의 各種 新聞이나 雜誌, 年鑑, 地誌, 統計資料 및 官報와 行政資料, 法令集 기타 教育·歷史的인 資料들을 主對象으로 하여 蒐集, 分析하였다.

本 内容에 관한 補充資料는 筆者의 學位論文의 記事를 参考해 주기 바란다.

II. 合併以前の 近代公共圖書館 運動의 概況

韓日合併以前 旧韓末當時 이미 이땅에는 甲午改革의 新文明이 밀어닥치면서 개화에 눈을 뜬 우리 先覺者들에 의해 平壤의 「大同書觀」과 京城의 「大韓圖書館」을 비롯해 近代圖書館을 設立하려는 운동이 민족의식의

* 國立 中央圖書館 司書.

발단으로서 산간벽지에 까지 퍼져가고 있었다. 더우기 막중한 계획아래 당시 정부의 협조를 받아 大韓帝國圖書館을 設立하려 했었고 이는 점차 發展할수 있는 充分한 要因을 구비하고 있었으나 결국 이 모든것은 韓日 合併의 悲運으로서 그 機能을 상실하고 말았다.

Ⅲ. 日帝下 近代公共圖書館의 設立과 그 性格

1. 時代別 및 地域別 概況

한일합방을 기점으로, 日韓末 당시 우리 先覺者들에 의해 잠시 활기를 띠었던 近代圖書館의 設立運動은 모두가 시들어 버리고 말았다.

또한 植民地化를 위해 분망하였던 日帝期間 朝鮮全域에 걸쳐 設立을 보았던 圖書館數는 80餘個를 넘지 못하였다. 이들 公共圖書館은 그 設立者에 따라 私立·公立·官立性格의 3가지 類型으로서, 그 設立順序도 私立·公立·官立의 公共圖書館으로 나타난다.

日帝初期에는 이들의 多數나 私立公共圖書館이었던것이 日本人의 격동적인 政策下에서는 대부분이 公立化 즉, 1930年代 後半을 넘어서면서부터는 府立圖書館으로 흡수되어 버리는 현상을 나타내었다.

時代上으로 이러한 私立圖書館의 設立은 己未獨立을 契機로 차차 增加一路를 나타내기 始作하였으니 이같은 動機는 當時 民族主義 運動이 全國의으로 과급되고 鼓舞化됨에 따라 日本人들이 高調化된 朝鮮人의 感情을 文化·教育的인 方面으로 轉向시키려 보려는 政策的인 意圖에서 기인된것이다.

그러나 1932年의 中日戰爭을 계기로 그들의 계속적인 財政的榨取와 聖戰 具顯을 위한 施政등은 더 이상 私立圖書館의 存立을 어렵게 하였다.

이리하여 1934年을 고비로 私立圖書館들은 차차 減少一路를 빚기 시작하여 1942年 太平洋戰爭時에는 10年前 33個館의 절반도 못되는 15個館으로서 줄어들고 말았다.

反面 府·道·郡·邑에서 設立하였던 公立圖書館들은 私立圖書館과는 달

리 그 증가되는 비율은 적다하더라도 지속적인 증가현상을 나타내었다.

官立圖書館은 1924 年에 設立된 朝鮮總督府圖書館과 特殊圖書館이면서 도 一面 公開圖書館의 性格을 겸비한 京城鐵道圖書館을 가리킨다. 이들은 設立後 解放時까지 지속적인 運營과정을 보여왔다.

合併을 前後하여 終戰까지 이들 官·公·私立別 公共圖書館들의 時代的 特徵을 살펴보면 대체로 官立은 開設後 증감없이 유지되었고, 公立은 開設以後 終前까지 지속적인 증가현상만을 나타내었으며, 私立은 設立以來 1934 年까지는 지속적인 增加현상을 보였으나 그 이후로는 점차 소멸되었거나 府立化되는 현상으로서 急減一路의 모습을 나타내었다.

이들의 地域的인 實態를 分析해보면 京城이나 平壤과 같은 都心地에는 그 圖書館數가 約 9 個館 乃至 11 個館 정도로서 비교적 많은 편이나, 이에 비해 交通手段이 不便한 內地나 僻地인 江原道와 黃海道, 忠北과 같은 地域들은 고작 1 個館 아니면 2 個館 정도의 圖書館數를 보이고 있었다. 결국 朝鮮全境 13 道에 걸쳐 1 個館以上の 公共圖書館의 設立을 보게된 시기는 1928 年때야 그 實現을 보았다.

2. 設立者別에 따른 公共圖書館의 分析

日帝下 公共圖書館의 類型은 그 運營主体에 따라 官立·公立·私立的 3 가지로 大分된다.

대체적으로 私立公共圖書館들의 設立은 個人的 私財를 投資했거나 또는 鄉校財産을 活用하여 또는 其他 여러 團體가 주동이 되어 設立되는 것이 大部分이다.

한편 公立公共圖書館들은 지방자치단체인 道, 府, 郡, 邑, 面 등에서 自体内的 經費를 일괄 支出하거나 아니면 一部는 鄉校財産 또는 一般有志들의 지원금으로서 設立된 사례가 대부분이다.

官立公共圖書館은 國家 直營으로서 總督府에서 直接 豫算이 査定되어 설립된 경우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러한 主体들의 內容과 그 運營過程등을 私立·公立·

官立의 順序로서 비교 고찰해 보고자 한다.

가) 私立公共圖書館

日帝下 朝鮮 全域에 걸쳐 設立을 보게된 私立公共圖書館들의 設立者와 그 운영과정은 대체로 아래와 같이 細分하여 說明될 수 있다.

첫째 : 朝鮮人 個人에 의한 私立圖書館들의 設立

둘째 : 日本人 個人에 의한 私立圖書館의 設立

셋째 : 郷校財産에 의한 私立圖書館의 設立

넷째 : 學校団体나 青年會등에 의한 私立圖書館의 設立

다섯째 : 基督教团体에 의한 私立圖書館의 設立

여섯째 : 言論機關에 의한 私立圖書館의 設立

일곱째 : 海外僑胞들에 의해 추진되어 오던 私立圖書館의 設立등이다.

그러면 여기서 上記 設立자 별로 나누어 私立公共圖書館들의 運營상태를 살펴 보고자 한다.

1) 朝鮮人 個人에 의한 圖書館設立

우리 朝鮮人에 의해 設立 운영되었던 圖書館은 1921年에 開館하기 始作한 京城圖書館을 代表로 들수 있다.

이는 本来 京城文庫에서 비롯된 것으로 1909年 1月 市内 南米倉町에서 日本人 山口精氏が 設立한 것이나 그 後 財政事情으로 1919年 11月 金允植, 尹益善氏가 이를 継承 운영하게 되었다.¹⁾

이듬해 1920年에는 다시 尹益善氏와 李範昇氏가 함께 운영하더니²⁾

1921年 9月에는 李範昇氏가 個人의 힘으로 혼자 인계받았다. 한편 尹益善氏는 市内 계동의 淸운정에서 分館을 맡아 継承 운영키로 정하였다.³⁾ 인계받은 李範昇氏는 總독부로부터 現在 종로 2 가에 있는 파고다공원 자리에 國有地 531 坪의 대지와 지상건물을 無料로 대부받아 “京城圖書館”이라 이름하고,⁴⁾ 尹益善氏는 다음해인 1922年 간도중학교 校長으로 就

1) 朝鮮總督府 編, 「朝鮮總督府統計年報」 大正 8 年版 p. 52.

2) Ibid., 大正 9 年版 pp. 52 ~ 53.

3) Ibid., 大正 10 年版 p. 53.

4) 日帝當時 京城圖書館에서 作成되었던 「大正 12 年度·業績報告書」 欄 7 月 31 日字에 記錄되어 있음.

任하게 되자 分館에 所藏되었던 圖書는 그곳 간도中學校로 옮기게 되고 따라서 分館은 폐지되고 말았다.⁵⁾

京城圖書館의 建物坪數는 147 평 7 흡으로서 그 규모는 비교적 큰편이었으나 개관당시부터 열람좌석의 부족함을 느끼었다.⁶⁾ 그후 일반인의 기부금과 은행대부로서 金庫를 증축했던 京城圖書館은 몇년 못가서 재정난에 부딪히게 되니 설립자를 비롯한 민중의 지도층에서는 이를 살리기 위해 各界에다 원조를 청하였다. 이에 言論機關에서도 新聞을 통해 사회 여러 부호가들에게 勸誘하는 口號를 호소하였던 것이다. 결국 京城圖書館을 살려 보려는 일부지도층들의 온갖 努力에도 불구하고 모든것은 수포로 돌아가버리게 되고 圖書館은 마침내 1924年 9月 無期休館에 들어가게 되었다. 當館의 이러한 절박한 事情은 당시 동아일보나 每日申報 記事에서도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우리 朝鮮人의 經營하는 事業은 모두 이같은 有始無終의 結果를 조차하는 例가 다한 것이니 누구의 罪인가? 個人의 罪인가? 社會의 罪인가? 필경인즉 社會의 罪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⁷⁾ 라고 울부짖었다.

결국 京城圖書館은 4만원의 鉅款으로 1926年度에 京城府로 인계되었으 며⁸⁾ “京城府立圖書館 鍾路分館”이라 개칭되기에 이르렀다.⁹⁾

이러한 실정은 비단 京城圖書館뿐만이 아니라 일제당시 대부분의 私立 圖書館들이 겪었던 공통적인 運命이었다고 할 수 있다. 京城圖書館 이외에도 우리 朝鮮人 個人이 設立한 도서관으로는 ;

i) 1924年度 姜偉情氏가 父親인 姜俊植氏의 遺志를 받들어 設立한 「鎮南浦圖書館」

ii) 1925年 篤志家인 劉勳榮氏의 寄附金 一部와 面費의 地方費 등으로

5) “鍾路圖書館設立概要” 「종로도서관보」 第6号. 서울, 종로시립도서관, 1975. p. 3.

6) Loc. cit.

7) 每日申報 1924年 11月 24日, 1面 “京城圖書館의 問題” 中에서 인용.

8) 每日申報 1926年 4月 1日, 2面.

9) 東亞日報 1926年 4月 24日, 4面.

設立한 「黃海道 海州圖書館」

iii) 1935年 中軒 文用奎氏의 유지에 따라 設立한 「中軒圖書館」

iv) 1939年 平北宣川의 有志인 李昌錫氏의 投資로 設立을 본 「宣川會館內圖書館」

v) 江原道 高城郡 溫井里에 居住하는 社會事業家 尹聲烈氏가 金剛山 探勝客을 위해 開設한 「金剛圖書館」

vi) 1939年 12月 全北의 金鍾大 嚴攢鎬 兩氏가 地方文化開發에 役점을 두어 開設한 「南原圖書文庫」등을 들 수 있다.¹⁰⁾

이들은 비록 그 規模가 크지는 못하였으나 大部分의 設立者들이 우리 朝鮮의 民族的인 業에 立脚하여 設立하였다는 점에 큰 意義가 있다 하겠다.

이와 같이 그 동안 많은 先覺者들이 도서관에 뜻을 갖고 헌신적으로 봉사 하려했으나 격변하는 植民時局의 情勢와 더불어 財政上의 애로는 물론 징병과 징용등으로 館員들이 激減하게되자 이들은 體館이나 閉館 또는 아예 府立圖書館으로 흡수되어 버리는 悲運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식민지의 狀況中에서도 튼튼한 財源으로서 一面 그 難觀을 잘 극복하여 유지되어온 平壤의 仁貞圖書館이나 1922年에 白善行女史가 設立한 공회당¹¹⁾, 1929年에 王在德氏가 設立한 信川農民學校,¹²⁾ 1931年에 金泉 崔松雪堂女史가 設立한 金泉高普¹³⁾ 등과 같은 女性들의 활발한 社會事業활동이 전국 각지에서 展開되었던 實例도 있었다.

2) 日本人個人에 依한 圖書館設立

韓日合併을 前後로한 圖書館의 設立은 主로 日本人에 依해 設立된것이 많다. 私立中 우리나라에서 日本사람에 의해 設立된 圖書館은 1901年에 세워진 釜山圖書館을 代表로 들 수 있다. 이는 1876年 마침내 釜山이 開港되고 異國땅 朝鮮各地에 그네들이 移住하면서 가장 必要했던것이 教

10) 青木修三 著. “최근에 있어서의 朝鮮의 圖書館界” 「文獻報國」 v.7, No.11, 昭和 16年 11月号 pp. 533 ~ 539.

11) 가. 東亞日報 1931年 12月 7日 1面
나. Ibid. 1928年 10月 5日, 4面

12) 東亞日報 1931年 12月 7日, 1面

13) Loc. cit.

養施設이었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日本人의 圖書館 設立은 初期에는 그네들의 素養教育을 위해 必要했던것이나, 이것이 後에 가서는 植民地政策의 一具顯을 極大化하기 위한 資料센터로서 活用되어왔던 것이다.

이에따라 初創期 朝鮮地域內 私立公共圖書館中에는 主로 日本人에 依해 設立된 것이 많았으니 그들을 整理해보면 아래와 같다.

| 〔設立年月〕 | 〔圖書館名〕 | 〔設立者名〕 |
|-----------|----------|-----------|
| 1901年 1月 | 京城文庫 | 山口精 |
| 1907年 2月 | 江景文庫 | 坂上富藏外 6名 |
| 1907年 7月 | 木浦圖書俱樂部 | 高根信礼外 9名 |
| 1911年 9月 | 順天圖書館 | 樋口正毅 |
| 1913年 8月 | 大田文庫 | 久門雄三 |
| 1914年 12月 | 天安文庫 | 田尻滿・紫崎定介 |
| 1915年 11月 | 靈巖文庫 | 最上豊大 |
| 1919年 1月 | 論山文庫 | 小島興一・富村一郎 |
| 1919年 6月 | 金次郎文庫 | 堀田孫乏 |
| 1919年 4月 | 光州圖書館 | 大塚忠衛 |
| 1926年 6月 | 平北簡易圖書館 | 多田栄吉 |
| 1933年 月 | 慶南永平護國文庫 | 村野玄郎 |

이들 圖書館中 烏致院圖書館과 論山文庫, 江景圖書館, 順天圖書館, 靈巖文庫등을 除外한 그밖의 圖書館들은 그후 公立으로 이양되었거나 아니면 폐관되고 말았다.

3) 郷校財産에 의해 設立된 圖書館

한편 日帝下 私立圖書館設立에 가장 主導的 役割을 보였던것은 「郷校財團」이다. 1918年 調査에 의하면 당시 郷校의 總數는 335個所가 되며 所管土地는 48萬坪이 되었다. 이와같은 郷校財産은 學校建立에도 專用되기는 했으나 원래 自体維持를 위한 財産을 保有하고 있기 때문에 當時 識者間에는 이 財産을 圖書館設立으로 專用하려는 움직임이 많

14) 朝鮮總督府 編, 「朝鮮總督府統計年報」明治 42年~昭和 17年間の 자료를 기초로 조사된것임.

았다. 鄉校財産을 圖書館設立에 活用하자는 運動은 때로 儒林이 勸導하여 協助하기도 했으나 一部 儒林에서는 이를 反對하고 나서는 일도 많았다. 이런 實情중에도 대체로 地方行政을 맡은 郡守등이 이를 提議하고 地方儒林도 이에 호응하여 設立되어진 경우가 보다 많았다. 鄉校財團으로 設立된 이들 圖書館은 대부분이 設立創設時부터 私立圖書館의 性格을 띄고 있었으나 일부 小數의 圖書館은 鄉校財産을 郡에서 管理하여 設立當初에는 公立으로서 出發하였다가 後에는 私立으로 변경되는 운영과정도 나타내고 있었다.¹⁵⁾ [例: 洪城簡易圖書館 (1924), 平北慈城郡圖書館 (1924)] 이는,

本來 鄉校財産은 地方的 公立學校財團으로서 식민지하에서는 日本人의 郡守나 府尹등이 管理케 된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향교에 의해 설립된 私立圖書館들은 1920年代에서 1935年 사이에 주로 設立된 것으로서 그 數는 거의 30餘個나 되었다. 여기서 이들의 名單을 地域別로 調查하면 다음과 같다.¹⁶⁾

忠北에 洪城簡易圖書館

忠南에 公州圖書館

全南에 潭陽郡圖書館과 谷城圖書閱覽所, 靈巖文庫

慶北에 尙州圖書館과 慶山圖書館

慶南에 咸安, 蔚山, 東萊, 密陽, 山淸, 南海, 固城, 梁山등의 簡易圖書館 (8個館)

平北에 泰川郡, 熙川郡, 寧邊郡, 博川郡, 鉄山郡, 楚山郡, 慈城郡, 厚昌郡, 昌城郡 등의 新聞圖書閱覽所 (9個所)와 定州圖書館 및 宣川會館圖書閱覽所가 있으며,

咸南에 咸興圖書館

京畿道에 開城圖書館과 安城圖書館

15) 朝鮮總督府 編. 「朝鮮總督府統計年報」大正 13年 (1924)版. 京城, 1925. p. 77.

16) 朝鮮總督府 編. 「朝鮮總督府統計年報」明治 42年~昭和 17年間の 資料를 기초로 조사된것임.

黃海道에 沙理院圖書館

江原도에 襄陽圖書館 등으로서,

이들 중에는 後에 公立化되거나 잠시적으로 運營의 所管이 변경되어지는 实例도 많았다.

이들 鄉校財團에서 그 경비지출의 一切을 担當하는것이 아니고 篤志家의 協助나 郡의 一部 設립된 圖書館들은 運營面에서 원조로서 運營되어 온 경우가 많았으며 規模에 있어서도 소규모로서 新聞閱覽所나 簡易圖書室등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实例가 대부분이었다. 運營기금액도 많아야 幾千圓, 적은 것은 幾百圓으로서, 매년 鄉校의 年收入만으로서 의존 유지해 오던 도서관들은 水害나 寒害를 만나 學田의 收入이 없을때는 當館을 폐관하고마는 事例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例: 1930年 密陽圖書館)

이중 公州, 咸興, 開城등 圖書館은 府·邑등에서 引受하여 公立化됐으며 全南靈岩文庫등과 같이 個人이 引受한 것도있다. 私立中에는 鄉校財産에서 運營되어온 圖書館이 가장 많아 1935年度 全國의 私立圖書館數 37個 中에는 鄉校財産에서 運營하는 것이 24個나 된다.¹⁷⁾ 이들을 다시 地域別로 分析하면 平北 10個, 慶南 8個, 江原 2個, 京畿 1個, 慶北 1個의 順으로서 平北과 慶南지방의 향교재단 運動이 가장 활발하였음을 파악할수 있다.¹⁸⁾

또한 1930年代 후반에 이르러 폐쇄상태의 圖書館動向을 살펴볼때 이들의 大部分이 鄉校財團에서 運營되어 오던 圖書館이었음도 파악될수 있다.

4) 學校團體나 青年會등에 의한 圖書館設立

上記外에도 圖書館設立의 一翼을 担當한 團體는 同窓會나 또는 學校組合등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團體들이다. 이들은 주로 학교교직원이나 졸업생들이 中心이 되어 設立했던 것으로서,

元山私立保光學校 敎員諸氏등의 圖書館設立計劃과 (1921)¹⁹⁾ 江原道 通

17) 朝鮮總督府圖書館 編. 「文獻報國」 第1卷 第1号. 昭和10年10月刊<別紙欄>

18) Loc. cit.

19) 東亞日報 1925年6月22日, 3面1段.

川郡 歙谷에 있는 普通學校 卒業生 一同이 計劃한 歙谷簡易圖書館(1925)²⁰⁾
江陵公立普通學校同窓會에서의 公開圖書館 竣工 등²¹⁾ 이러한 圖書館들은 얼
핏 보기에는 學校圖書館으로서 이해되기 쉬우나 당시 朝鮮內의 여러 圖書
館들은 圖書館建物の 마련을 求하기 어려웠던 실정으로 단지 그 所在를
學校構內에 設置해 뒀을뿐 그 열람대상은 兒童과 在學生은 물론 地域住民
의 一般大衆에게도 公開시키던 모습을 찾아 볼수 있다. 이들 圖書館의 規
模는 극히 적을뿐 아니라 未備된 점도 많아 그 運營過程에서 오래 존속
치 못하고 거의 自體內에서 自然 소멸되고 말았다.

한편 靑少年들에 의한 도서관 활약도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니 이들은
1924년부터 1927년에 걸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釜山朝光會나²²⁾ 新高山
青年會에서의 簡易圖書館設立,²³⁾ 黃州青年會의 黃州圖書館,²⁴⁾ 鎭海青年會에서
의 簡易圖書館의 設立 등이다.²⁵⁾ 이러한 청소년들의 열의에 호응하여 지방
各處의 뜻있는 독지가들도 출선하여 도서관설립을 서둘렀으니 晉州 有志
인 尹增鉉, 趙顯鎔, 朴在均 등 諸氏와²⁶⁾ 慶北 安東地方의 有志인 金中學 鄭
顯模氏²⁷⁾ 그리고 慶南 統營의 崔榮基氏 등 23人的 有志가 中心이 되어²⁸⁾
各 地方마다 圖書館의 設立을 위한 發起人 總會를 추진하였던 것이다.

5) 기독교단체 및 언론기관과 해외교포들에 의한 私立圖書館 設立
基督教團體도 近代圖書館運動에 裨를 수 없는 貢獻을 남겼으니 仁川
基督教青年會文庫(1911)²⁹⁾ 나 義州基督教青年會圖書館(1927)³⁰⁾ 原州邑教
會圖書館, 平壤의 토마스 목사紀念圖書館³¹⁾ 등은 성경을 中心으로 주로 신자

20) 東亞日報 1925年 8月 10日 3面 10段.

21) 東亞日報 1928年 8月 27日 4面 6段.

22) 東亞日報 1924年 3月 7日 3面 5段.

23) 東亞日報 1925年 2月 21日 3面 5段.

24) 東亞日報 1925年 8月 7日 3面.

25) 가. 東亞日報 1927年 10月 3日 4面 3段.

나. Ibid., 1926年 12月 5日, 4面 8段.

26) 東亞日報 1925年 12月 27日 4面.

27) 東亞日報 1927年 7月 6日 4面.

28) 東亞日報 1927年 7月 6日 4面.

29) 朝鮮總督府 編, 「朝鮮總督府統計年報」 明治 44年(1911)版, p. 810.

30) 東亞日報 1927年 5月 13日 4面 7段.

31) 朝鮮總督府圖書館 編, 「文獻報國」 第7卷 第10号, 京城, 昭和 16年(1941)
p. 533.

들에게 성경知識을 높여 주는데 그 目的을 두고 있었으며 主日學校課題를 通하여 一般民衆을 文旨에서 깨우쳐 주고 우리 民族의 自主意識을 갖게 하는데 큰 공헌을 담당하였다.

이들에 의한 私立圖書館의 設立은 그 대부분이 우리의 民族的인 自主意識과 宗教的인 定義感이 영합되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떠한 종류의 도서관 보다도 운영의 난관을 많이 겪어야 했다.

이외에도 東亞日報 金泉支局이나 利原支局의 도서관이나 황해도 谷山郡 寬美面에 設立된 新坪文庫와 같은 곳에는 언론기관에서 신문과 잡지를 비치해 놓고 자유로이 열람토록 하였으니 당시 이러한 형태의 도서관은 흔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³²⁾

끝으로 私立公共圖書館의 設立運動은 國內뿐 아니라 海外的 교포들에 의해서도 추진되었었다. 1924年 소련철도의 기점인 海參威의 「高麗圖書館」³³⁾, 1931년 하와이교포들의 「朝鮮文庫」³⁴⁾, 1933년에는 美國 콜럼비아대학 民族文化館의 「朝鮮圖書館」³⁵⁾ 등 과 같은 설립등은 조국의 文化를 갈구하는 해외교포들의 민족적자각이 선행되었던 것으로서 당시 植民政策이 아닌 狀況이었다면 우리나라 도서관제도 눈부신 발전을 가져올 기회가 다분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나) 公立公共圖書館

日帝下の 公共圖書館에서는 私立과 公立에 대한 그 운영의 樣相이 서로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대체로 日帝下 公立公共圖書館들은 그 府나 道, 郡, 邑등에서 運營했던 것으로 이에 대한 모든 경비도 그 地方自體의 豫算에서 直接 査定되어 支出되기 때문에 私立과 같은 運營의 어려움은 겪지 못하였다.

당시 公立圖書館의 設立狀況을 보면 府立이 제일 많고, 다음이 邑, 道,

32) 東亞日報 1927年 3月 19日 4面 10段.

33) 東亞日報 1924年 7月 4日 2面.

34) 가. 東亞日報 1931年 7月 26日 2面 8段.
나. Ibid., 1931年 1月 1日 2面.

35) 東亞日報 1931年 10月 27日 4面.

郡의 順으로 나타난다. 日帝下 公共圖書館數가 가장 많았던. 1935年度의 全國公立圖書館數는 52個館中 21個館으로서, 이 중에는 府立이 14個, 邑立이 4個, 道立이 2個, 郡立이 1個館으로 결국 全體의 3分之2가 府立으로 나타난다.³⁶⁾

이들 公立中에 京城府立鍾路分館, 釜山府立圖書館, 木浦圖書館등을 私立이 府立化된 것이며, 郷校財産에서 운영되어온 開城圖書館과 咸興圖書館등도 私立이 府立으로 변형된 것이다. 또한 洪城圖書館은 私立이었던 것이 郡立으로 移管된 것이다.

여기서 公立公共圖書館들의 狀況을 各 財團別로 整理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40年 當時를 기준하여 볼 때,

府立으로는 :

京畿道の 京城, 仁川, 開城, 府立과 京城府立鍾路分館, 忠北의 大田, 全北의 群山과 全州, 全南의 木浦, 慶北의 大邱, 慶南의 釜山과 馬山, 平北의 新義州, 平南의 平壤과 鎭南浦, 咸南의 元山과 咸興, 咸北의 淸津府立圖書館의 10道에 걸쳐 17個館이나 되었다.³⁷⁾

道立으로는 :

忠北에 淸州簡易圖書館 (1935年 淸州邑에다 道에서 設立)
全南에 全南教育文庫 (1920年 10月)
光州邑圖書館 (1932年 4月 光州邑 소재지에 道에서 設立)
全北에 全羅北道文庫 (1922年 9月) 등 以上 4個館이 있으며,

邑立으로는 :

京畿道에 水原圖書館 (1940年 5月)
忠北에 淸州邑圖書館 (1931年 9月 淸州邑에다 邑에서 設立)
忠南에 公州圖書館 (元來는 私立으로서 設立했으나 1932年에 향교재단

36) 1928年 6月 以後 公立化 되었음.

37) 山本春喜 述 “後潤錄”中 “全鮮府私立圖書館振興 第1次計劃” 「文獻報國」 第5卷 第12号. 京城, 總督府圖書館, 昭和 14年 12月刊. pp. 18 ~ 22.

에서 그後 다시 1935年에 邑에서 인수, 公立化되었다)
 黃海道에 御成婚紀念海州圖書館(1929年 郡에서 운영하다가 1931年 邑
 에서 引受함)

咸北에 會寧圖書館(1933年 12月) 등의 5個館이 있으며,
 郡立으로는 :

忠南에 洪城簡易圖書館(1922年 4月 향교재산으로 設立되었으나
 1929年 郡으로 引受됨)

이 있다.³⁸⁾

以上の 圖書館을 地域別로 分析하면, 府立은 忠南과 강원도, 황해도의
 3道에 만 設立안되었을뿐, 京畿道の 4個館을 위시로 各道마다 1個 乃至
 2個館씩 設立된 셈이다.

道立은 全南에 2個, 全北과 忠北에 各 1個館씩 設立되었으며,
 邑立은 京畿道와 忠南, 忠北, 咸北, 黃海道에 各 1個館씩이며,
 郡立은 忠南에 겨우 1個館이 있을 뿐이다.

다) 官立公共圖書館

官立圖書館이란 國家가 設置한 圖書館으로 오늘날의 國立圖書館의 性格
 과 같다. 즉, 日帝當時 京城府 鐵道局의 所屬이었던 鐵道圖書館과 國家가
 直接 運營하는 總督府直割로서의 朝鮮總督府圖書館이 官立圖書館에 屬한다.

本 研究에서 官立을 一對象으로 삼은것은 이들이 國家圖書館이긴 하나,
 그 機能面에서 一般公共圖書館의 性格도 겸비하고 있으므로서 그 運營을
 分析·檢討해 보려는 意圖에서이다.

1) 朝鮮總督府圖書館

1923年(大正 12) 3月에 京城府內 南大門通 光宣門內에 자리잡은 朝
 鮮總督府圖書館은 總建坪數 199坪의 近世부흥식 연와조의 2層양옥과 지
 하실로서 總工事費 22萬6千원을 들여 工事に 착수, 다음 1924(大正
 13) 度에 竣工을 보았다.³⁹⁾

38) Loc. cit.

39) 가. 東亞日報 1924年 9月 21日 3面.

나. Ibid., 1925年 2月 18日 1面.

當圖書館의 設立動機는 李範昇氏의 回顧談에도 잘 인용되어 있거니와 당시의 社會情勢로 보아서도 3.1 운동이후 점차 高調化된 民族感情을 文化的인 측면으로 完화시키려는 政策的인 의도에서 本 圖書館의 設立을 試圖하는 한편 一般 民衆의 私立圖書館의 設立 취세에도 자극되어 本 圖書館의 設立을 서두른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기러한 시대적 상황은 1920年을 前後한 公共圖書館의 設立狀況을 보아서도 알수 있는 일이다.

一日閱覽者狀況도 6割以上이 日本人으로서, 當圖書館은 元來 總督府의 補助機關으로서의 役割도 담당하였으니, 이는 宇垣總督의 演說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 「朝鮮統治의 信念과 함께 圖書館으로 하여금 社會思想의 動向 및 觀測所가 되고 동시 良書 및 善本의 選擧所가 되어 주기를 요망한다」라고 피력하였다.⁴⁰⁾

當館司書인 島崎末平氏는 「우리는 社會教育者의 一員으로서 國民精神作興에 이바지할 수 있는 各種 方法과 施設을 강구하여 사상전도를 도모하고 國體의 참뜻을 認識시킬 必要가 있다」는 意圖下에서 우리 일반 조선인이 閱覽할수 있는 책을 주로 新書에 限하고 古書나 洋書는 閱覽할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적었다. 특히 우리나라 民族史에 관한 文獻은 整理라는 名目下에 一部 열람을 금지시켰으니⁴¹⁾ 이 資料들은 해방이후 最近에 와서야 再整理되어 目錄을 完成하였다.

한마디로 總督府圖書館은 國家의 直割로서 그 施設이나 藏書規模 또는 職員構成에 있어서 他圖書館보다는 上位의인 立場에서 모든 圖書館을 제압하고 있었으나 明夷共히 國家最高의 圖書館이 그 本來의 機能보다는 諸政策遂行에 必要한 手段으로서의 比重을 두고 있었다 하겠다.

2) 鐵道圖書館

이 圖書館은 本來 1920年 5月 滿鐵京城圖書館이란 이름으로 탄생되었다.

40) 京城日報 1935年 11月 7日 3面.

41) 가. 朝鮮總督府圖書館 編, 「文獻報國」 第3卷 第10号, 京城, 昭和 12年 10月刊, p. 24.

나. Ibid., 第8卷 8月号, 昭和 17 (1942) pp. 25 ~ 26.

當時 日本政府는 鐵道の 沿線을 확장시켜 日本과 灣洲를 잇는 교량역으로서의 諸施設을 強化하고 整備하는것이 最上 目標였으니 이러한 意圖를 지니고서 그 발족을 보게된것이 日帝下 朝鮮의 鐵道圖書館이다.

當館의 예산은 滿鐵에서 一切 위임 운영 되었던 것으로 당시 5億이란 방대한 철도예산의 一部가 도서관운영에도 많이 투입되었다고 한다.⁴²⁾

一面 그들은 局員들의 敎育을 위하여 釜山을 기점으로 하르빈·大連 등 鮮滿직통의 급행열차에는 軍事와 工学계통의 중요한자료를 포함한 일반교양서등의 列車文庫를 싣고 鮮內 各沿線의 30餘군데에 巡廻文庫를 回送시켰던 것이다.

당시 여기에 사용된 상자수만도 千餘個에 가깝고 每日 20個정도의 상자가 返納되고 다시 발송되었던것으로 대출책수는 매일 1만책이나 되었다.⁴³⁾ 또한 局員 및 一般人의 貸出도 보증인 한도내에서 가능하였으며 특히 地方에 있는 職員들은 列車便을 利用토록하여 通信과 貸出을 自由로 이용토록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상황은 45名中 朝鮮인은 5, 6명의 고용원을 둘뿐 정식사무원은 1名도 채용치 않았다.⁴⁴⁾

이와같이 日帝下 官立圖書館들은 그 設立主体나 財團面에서 一般 私立圖書館보다는 훨씬 優位的인 여건下에서 設立되었으나 그 운영목적이나 활동범위는 제국주의적인 입장에서 他도서관보다 꽤 의도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IV. 植民地下 各 公共圖書館의 實態分析

1. 組織構成面의 實態分析

a) 機構編成

日帝下 公共圖書館의 職制나 機構에 관한 論証資料는 극히 찾아보기 어

42) 日本圖書館協會 編, 「日本圖書館雜誌」 1965年8月号, 東京, 1965. pp. 49~51.

43) Loc. cit.

44) 日本圖書館協會 編, 「日本圖書館雜誌」 1965年8月号, 東京, 1965. pp. 49~51.

렸다. 그러나 一部 얻어진 史料들을 중심으로 그 共通點을 찾아보면 一般的으로 日帝下 公共圖書館들은 庶務, 司書, 閱覽의 가장 基本的인 3部 畧로서 区分運營되어 왔음을 알수 있다. 그것이 비록 個人에 의해 設立된 圖書館이건 學校組合이나 鄉校財團 및 地方自治團體에 의한 圖書館이던 이들은 대체로 1930年代 後半을 넘어서서야 어느정도 體系性을 띠게 되었다.

여기서 1934年 開館 10週年을 맞고서야 당시 朝鮮에서 最大圖書館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된 朝鮮總督府圖書館의 改編된 새 機構를 살펴보면 庶務係·司書係·保存係·閱覽係·社會係의 5係로서 区分되어 있으며 各係마다 主任을 두고있다.⁴⁵⁾ 그後 政策變化에 따라 1940年 11月부터는 中日戰爭이 長期戰化되니, 戰爭遂行에 總力을 기우려 各係의 業務量을 再調整하고 國民總力朝鮮總督府圖書館聯盟과 같이 戰時體制로 바꾸었다. 그리하여 各係를 班으로 改稱하고 機構도 庶務班, 司書班, 保存班, 閱覽班 등으로 編成하여 班마다 班長을 두었다.⁴⁶⁾ 또한 1943年度에는 中央圖書館의 體制를 갖추기 위해 크게 各班을 第1, 2, 3部로 나누어 편성시키고, 館長 밑에 各部에는 部長을, 部長 밑에 各班에는 班長을 두고 있었다. 이때 改編機構의 특징은 언제나 庶務가 첫 順位였던것이 司書を 첫 順位로 하고 閱覽을 2順位, 庶務를 3順位로 改編한바 이는 주목할일이라 하겠다. 반면 獨立되었던 受書業務가 다시 庶務班에 예속, 다시 係로서 환원시킨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⁴⁷⁾

한편 1937年 4月 1日 수차에 걸쳐 改編된 鐵道圖書館의 職制는 庶務係, 藏書係, 目錄係, 閱覽係, 巡廻文庫係, 教養係등의 順으로서 이들은 鐵道職員을 主對象으로 하여 특히 그들의 專門知識과 教養向上을 위한 組織體로서 구성되었음을 알수 있다.⁴⁸⁾

45) 國立中央圖書館史, 서울, 國立中央圖書館, 1973. pp.164 ~ 165.

46) 國立中央圖書館史, 서울, 國立中央圖書館, 1973. pp. 165 ~ 166

47) 國立中央圖書館史, 서울, 國立中央圖書館, 1973. p.167.

48) 朝鮮圖書館研究會 編, 「朝鮮之圖書館」 第6卷 第1号, 昭和 13年 2月刊. “鐵道圖書館 館務改善資料” (二) 中에서 인용.

以上の 2個 官立図書館의 경우는 司書, 閱覽業務의 部署보다는 受書를 中心한 행정업무와 제국주의적 국민정신의 振作을 위한 編纂事業, 그리고 國民精神作興의 보급을 위한 館外活動業務担当의 部署가 그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京城図書館이나 평양의 仁貞図書館, 仁川府立図書館, 開城府立図書館과 같은 일부의 公·私立公共図書館에서는 어느정도 組織機構가 體系化되었으나 역시 이들도 基本的인 庶務나 司書, 閱覽部署의 테두리를 벗어나지는 못하였다고 볼수 있다. 또한 全南의 谷城図書館閱覽所나 平北의 新聞図書館閱覽所, 南源文庫 또는 慶北의 많은 簡易図書館과 같은 例는 겨우 이름만의 図書館일뿐 실제로는 독서실 정도의 規模에 불과했던 것으로 그 業務部署의 활동범위 역시 미약하였음을 알수 있다.

오늘날에 와서 이에 관한 資料 또한 蒐集하기 어려웠던 事情도 이에 기인함이 아닌가 미루어 짐작된다.

b) 職員現況

日帝下 各 公共図書館의 職員狀況을 分析해 볼때, 各 館長의 위치는 府立의 경우 大部分이 府尹이나 府에 所属된 장학사 또는 課長職 및 主任級에 속하고 있는 日本人들이 대부분 겸직하고 있는 實例가 많았으며, 私立図書館의 경우는, 그 地方의 有志나 아니면 教育界에 貢獻이 있는 人士 또는 해외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學識있는 分으로 充當된 例가 많았다.

郷校財團에 의해 設立된 図書館은 거의가 이에 소관된 郡守들로서 図書館長職을 兼임토록 하였다. 이는 郷校를 管理運營하는 機關이 郡에 屬해 있는 것으로 図書館의 円滑한 財政面을 뒷받침 해주기 위한 조처였다고 생각된다.

各 部署에서 從事하는 職員들도 專門職보다는 郡內 各 行政主事나 書記, 고용원, 급사등과 같은 非專門職으로 充當되고 있으며, 이것마저도 臨時的으로 採用하고 있는 例가 대부분이다. 더우기 官·公立図書館의 正式職員이란 日本人이 大部分이요 朝鮮人은 不過 한, 두명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 것마저도 임시직이 고작이었다.

그러므로 日帝下の 公共圖書館의 組織構成은 官立을 제외한 대부분의 公·私立圖書館들이 대개 2, 3名 乃至는 10餘名이내의 職員數로서 겨우 운영되어 왔음을 파악할때 이에 体系的인 機構編成이란 이루어질 수 없었음을 생각할 수 있다.

2. 財政 運營面의 實態分析

日帝下 여러 도서관의 財政狀況을 살펴보면 官·公·私立間에는 設立當初 부터 財政的인 심한 格差를 보여주고 있다. 資料에 나타난 日帝下 小數圖書館들에 관한 創設當時의 施設과 경비조달등을 살펴보면 첫째 1941年度까지 유지되어왔던 26個의 公立公共圖書館들은 대개가 府나 郡·邑面 등에서 出資하여 設立된 것이며 둘째 32個의 私立公共圖書館들은 그 대부분이 몇몇 誌志家들의 발기에 의해 一部人士들의 기부금이나 아니면 거의가 銀行의 대부 또는 府나 郡의 보조금 그리고 鄉校財政 및 社會여러 단체의 후원으로서 設立되었다.

個人에 의해 設立되어진 私立公共圖書館도 그 재정상태에 따라 운영과정의 樣相을 달리 나타내고 있었으니 그 代表的인 例로서 私立圖書館中에서 平壤仁貞圖書館과 京城圖書館을 들수 있다.

仁貞圖書館은 金仁貞女史의 기부금으로서 그의 환갑기념을 계기로 1931年 2월에 建築費外에도 14,500餘원을 들여 設立되었다. 이 建築費外에도 부지대금(644坪) 8,400餘원과 圖書購入費 7,000원, 創立費 3,000원, 器具費 2,000원 등이 소요되었다. 또한 小圖書館은 平南江西郡에 소재한 土地 9만평(當時 代金으로 5만원 상당)을 창설당시부터 함께 보유하므로써 도합 8만 5천원이란 기본재산으로서 출발하였다.⁴⁹⁾ 이만큼 견고한 재정을 기반으로 本圖書館을 財政的 파탄없이 終前까지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모범적인 도서관의 하나라고 볼수 있다.

다음으로 1921年 9月 이범승氏가 京城圖書館을 인계받은 後 個人이 私財를 들여 旧建物を 修理하여 圖書館의 設備를 갖추었다. 그후 1922年

19) 가. 朝鮮圖書館研究会 編, 「朝鮮之圖書館」 第2卷 第3号, 昭和7年(1932)p. 31.
나. 東亞日報 1930年 9月 28日, 6面.

에 민영휘氏의 1,200 원을 위시하여 朝鮮教育會의 1,500 원과 기타 여러 人士의 회사 및 銀行으로 부터 2,900 餘원의 대부를 받아 1923年 7月 130 餘坪의 현대식石造 신관 3 층을 建築하였다.⁵⁰⁾

그러나 이 도서관은 원래 자체내의 基本財政이 미약하고 더우기 무거운 銀行負債에 의존했던 탓으로 불과 2, 3년이 못되어 재정난에 부딪치게 되었다. 일시 휴관에 들어갔으나 결국은 1926年 3月 25 日字로서 京城府에 다 완전히 양도하고 말았다.⁵¹⁾ 當時 本館의 悲運을 보도한 新聞에 의하면 同館의 2個年 收入은 國庫補助 1,000 원과 京城府補助 2,000 원 京畿道補助 300 원 및 당관수입 1,200 원 합하여 僅히 4,500 원을 得하는 이외에 다시는 추호를 加할 여지가 없고⁵²⁾ 더욱이 3萬원의 부채에 대한 年賦償還金 6,000 円이라는 거액은 도저히 屢출할 방도가 없게 되었다 한다.⁵³⁾ 이로 인하여 同館의 運命은 드디어 日本人의 運命권으로 넘어 가기에 이르렀다.

一面 官·公·私立別 公共圖書館들의 支出財政內訳을 서로 비교해 보면 1941 年度를 기준으로 일년동안 官立은 一館當 94,781 원, 公立은 7,260 원, 私立은 33,722 원의 지출액으로서 동시 官立이 가장 많은 지출예산을 보이고 있다. 圖書購入費에 있어서도 관립이 가장 우위로서 總支出額의 관립은 40.7%, 公立은 25.5%, 私立은 0.95%로 나타난다. 그러나 반면 人件費에 있어서는 私立이 가장 직원대우를 인정해주고 있는 상태로서 總支出額의 관립은 47.3%, 公立은 49.4%, 私立은 68.1%의 비율로서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었다.⁵⁴⁾

以上과 같은 경우에서 우리는 圖書館의 財政이란, 收入을 기반으로 하여 支出이 計劃된 것이 아니고 支出에 소요되는 一切의 경비를 별도의 기본

50) 가. 「國協月報」 1964年 5月号.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64. pp. 146~147.

나. 東亞日報 1924年 3月 31日, 2面.

51) 每日申報 1924年 11月 24日, 1面.

52) Loc. cit.

53) 每日申報 1924年 11月 24日, 1面.

54) 朝鮮總督府 編. 「朝鮮總督府統計年報」 昭和 16~17年版, 2冊. 各pp. 228.

적 資産이나 國家 또는 후원회의 재정적인 뒷받침으로만 확보될수 있음을 파악하게 된다.

3. 藏書構成面の 實態分析

圖書館의 藏書는 當圖書館의 흥쇠와 더불어 增減의 현상을 나타낸다. 1913年以後 1942年度까지 約30年內의 公共圖書館數는 約4倍가 增加되었으나 이 기간 동안의 藏書量은 約34倍가 增加되었다. 이를 年平均冊數로 따지면 每年 25,450冊의 增加量을 나타낸 셈이다.⁵⁵⁾

圖書館數가 增加하면 그와 함께 全體藏書量도 正比例함이 통상적인 생각이나 日帝下에서는 도서관수는 減少되어도 藏書量은 增加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支那事變以後 12個나되는 私立圖書館들이 차차 府立化되면서 그들의 藏書도 함께 移管된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므로 圖書館數가 가장 많은 1932年度를 기준하여, 地域別로 各도서관의 藏書量과 圖書館數를 비교해보면 藏書量으로는 京畿道를 위시하여 慶南과 平南의 순서로 많은 量을 차지하나 圖書館數로는 慶南이 가장 많고 다음이 平北과 京畿道の 순으로 나타난다.⁵⁶⁾

한편 日帝下 官·公立圖書館에 있어서의 圖書選択은 1943年 太平洋戰爭時에 仁川府立圖書館長으로 있던 「片平道」氏의 “圖書館藏書蒐集의 目的”이란 演說에서도 말하듯이⁵⁷⁾ 우리 朝鮮人들에게는 그들의 日本精神을 심기 위한 所謂 皇國臣民化를 期하고 帝國主義政策을 效果的으로 遂行하여 戰爭에서 必勝하는데에 必要한 資料의 蒐集만이 第一次의인 使命이었다. 또한 그들의 圖書蒐集方法은 購入또는 主로 기증에 의존했으며 時代情勢에 따라 圖書의 供出方法이나 國際交換의 方法도 취하고 있었다.

藏書의 主題別內容은 圖書館마다 각기 그 分類基準을 달리하고 있어 同一主題分野의 比重을 對比하기가 극히 힘들다. 그러므로 本 研究에서는

55) 朝鮮總督府 編, 「朝鮮總督府統計年報」 資料를 基礎로 한것임.

56) Ibid., 昭和7年度(1932)版, pp. 711~712.

57) 總督府圖書館 編, 「文獻報國」 第4卷 第4号, 京城, 昭和3年(1938) pp. 7~12.

朝鮮總督府圖書館에서 使用하던 分類法을 기준으로 蒐集된 10餘個 公共圖書館의 藏書現況을 調査 分析해 보려한다. 이들은 各各 그 藏書의 所藏年代가 一定치는 않으나 대체로 規模가 큰 圖書館은 500冊 未滿의 量으로 圖書館마다 심한 格差를 보이고 있다.

藏書의 主題內容은 대부분이 語學·文學分野가 아니면 總類系統이었으며 그 다음은 歷史·地理나 産業, 芸術 그리고 教育·社會等과 같은 人文社會系統의 分野였다. 反面 가장 그 比重이 적은 것으로는 工學과 軍事系統으로서 대부분의 圖書館이 모두 그 共通性을 띄고 있다.⁵⁸⁾

이러한 圖書蒐集 傾向은 朝鮮人들의 理·工學系統의 技術習得을 꾀하였던 반면 軍事學은 秘密을 지키려고 意圖의으로 統制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4. 閱覽奉仕面의 實態分析

가. 閱覽의 制限性

公共圖書館에 있어 合理的인 運營方針의 궁극목표는 「最大의 奉仕活動」에 있다. 日帝下 各 公共圖書館의 閱覽規定에 있어서는 저마다 多少의 차이는 두고 있으나 대부분의 圖書館이 新聞과 雜誌등은 自由로이 閱覽할수 있도록 마련하였다. 그러나 官立圖書館의 경우 學生 및 年少者에 한해서는 貸出圖書의 範圍를 제한하고 있었다. 또한 閱覽資格에 있어서도 大邱府立圖書館에서는 만 12歲 未滿인자,⁵⁹⁾ 鐵道圖書館에서는 만 15歲 미만인자로 閱覽을 제한하고 있었으며,⁶⁰⁾ 鐵道局員 以外의 一般個人은 20歲 미만인자로 제한하고 있었다. 그리고 음주한 사람 또는 관내 풍기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者, 전염병을 옮길우려가 있는 患者, 圖書를 망실했거나 毀損하고 변상치 않는 자는 閱覽을 제한시키고 있다. 아울러 규정위반이나 係員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자에 대해서는 퇴관 및 일정기간 閱覽을 許하지 않았

58) 가. 朝鮮圖書館研究會 編, 「朝鮮之圖書館」第3号, 第4卷2号, pp. 33~40.
나. 東亞日報 1926年8月6日, 4面.

59) “大邱府立圖書館條例” <第8条> 1項. 大邱府立圖書館·「藏書目錄」昭和2年(1927) 附錄에 記錄.

60) “鐵道圖書館規則” <第4条>

61) 다. 이러한 事例는 특히 日帝下 官立과 公立圖書館에서의 두드러진 공통점이라 할수 있다.

나. 貸出業務와 奉仕

日帝下에 있어서 閱覽者을 위한 圖書館의 館內貸出業務는 一般的으로 貸出申請의 接受圖書의 出納業務, 圖書의 再點檢 등의 節次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를 담당하는 직원도 겨우 한두명으로 배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1930年代 後期부터 始作된 館外貸出의 實施는 다소의 제약성은 있다 하더라도 오늘날 우리의 실정보다는 훨씬 활발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支邦事變으로 인해 全國土가 戰時體制로 돌변화되고 이에따라 失業者가 膨脹되면서 圖書館을 찾는 利用者數가 점차 격증되자 圖書館 施設의 부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독서관장을 위한 한 手段으로서 時局 認識을 위한 資料의 館外貸出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게 되었으니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들의 의도적인 제국주의 정착의 面을 찾아 볼수 있다. 日帝下 그들이 館外貸出制度를 實施했던 가운데 몇 가지 제한적인 요인들을 찾아보면,

첫째, 京城의 兩官立圖書館에서는 館內貸出의 申請資格을 一般人보다는 會員이나 職員中心으로서 貸出의 限界性을 縮小시키고 있다. 더구나 鐵道圖書館의 경우는 「貸出圖書에 있어 申請冊數를 適宜 制限 또는 選擇을 加할수 있다」는 제약성을 두고 있었으며⁶²⁾ 조선총독부 圖書館의 경우는 대출규정중에서 「보증금액의 이상되는 圖書를 閱覽하고자 할시는 京城府에 거주하는 20歲以上の 신원확실한 成人의 보증인 1名이 必要하다」라고 되어있다.⁶³⁾

원래 이러한 館外貸出은 독자가 時內이나 場所의 제약을 받지 않고서

61) “登山府圖書館修例” <第9條>

“鐵道圖書館規則” <第6條> <第7條>

“京城府立圖書館使用修例” <第2條> <第3條>

62) “鐵道圖書館規則” 中 館外貸出規定의 <第24條>

63) 朝鮮總督府圖書館 “館外貸出規定” 中 <第5條>

自由로이 독서할수 있도록 권장하는 제도로서 日帝下에서는 여러가지 閱覽 規定의 제약과 많은 보증금 등으로 時間의 여유가 많은 朝鮮人의 失業者 보다는 一定한 職業을 가진 官吏나 会社員 또는 教師 및 銀行員들에게 더욱 많은 환영을 받아 왔다.

그러나 館外貸出에 있어서도 모든 冊이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니었으며 資料의 形態와 內容에 따라서, 또는 時代와 專門性에 따라서도 많은 제약을 가하였다. 實例로서 官報나 新聞, 貴重圖書, 會画圖案集, 寫真帖, 參考圖書나 定刊物 및 稀貴圖書 以外에도 民族史에 관련된 古書籍들은 直接 館長의 지시에 따라 館外貸出을 禁止시키고 있었다.⁶⁴⁾

다. 利用 狀況의 實態와 分析

時代순으로 보아 가장 利用率이 높았던 時期는 1932年을 基準으로 太平洋戰爭이 絶頂에 이르렀던 1942年까지로 나타난다. 이에 1932年을 기준으로 당시 하루평균 閱覽人員을 分析하면⁶⁵⁾

- ① 100名以上~1000名未滿의 圖書館이 모두 5個館이며
- ② 50名以上~100名未滿의 圖書館이 6個館
- ③ 10名以上~50名未滿의 圖書館이 8個館
- ④ 10名以下の 圖書館이 모두 33個館으로서 나타난다. 실제로 이중에 도서관 다운 면모를 갖춘것은 京城地方의 京城府立圖書館과 鐵路分館, 鐵道圖書館, 總督府圖書館의 4個 圖書館을 비롯하여 平南地域의 平壤府立圖書館과 平壤仁貞圖書館등의 6個館 뿐이며 그외의 46個館들은 당시 조선전 지역의 도서관의 一日平均 閱覽人員數인 78名이란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저조한 상태였다.

地域的 利用分布面에서도 京畿道の 京城地方을 除外하고는 平北과 慶南 그리고 全南地方만이 다소의 활기를 띠고 있을뿐 어느地域을 막론하고 그 열람상황이 저조하였음은 두말할 必要가 없다.

64) 朝鮮圖書館研究會 編, 「朝鮮之圖書館」 第4卷 第2号, 昭和9年7月刊, pp. 35~36.

65) 朝鮮總督府 編, 「朝鮮總督府統計年報」 昭和7年度版, pp.711~712.

한편으로 日帝下 公共圖書館에 관한 利用者의 身分 및 職業別調查에 있어서는 公立圖書館中에서도 몇개는 私立圖書館 못지않게 朝鮮人의 閱覽人員이 日本人보다 더 많은 比重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平壤府立圖書館, 開城府立圖書館, 咸興府立圖書館 등은 日本人 利用者가 각각 8割 乃至 9割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⁶⁶⁾ 이를 男女別로 볼때는 女子보다는 물론 男子가 앞섰고 一般成人보다는 學生層과 就學兒童의 利用率이 높았다. 또한 職業別 基準을 찾아보면 대체적으로 ① 學生 ② 教育家·宗敎家 ③ 기자·예술가 ④ 관공리·軍人 ⑤ 銀行·會社員 ⑥ 農·工·商業家 ⑦ 職工·徒才 ⑧ 기타職業 ⑨ 無職者 ⑩ 兒童등의 범위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를 利用率이 높은 順位로 따져보면 學生과 無職者가 제일 많고 農商工業者, 官公吏, 雜業 및 兒童이 다음이고 반대로 銀行, 職工, 徒才 등이 가장 저조한 순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職種別 增加趨勢의 현상은 各圖書館마다 一般的으로 學生과 無職者, 雜業만이 두드러질 뿐 전체적인 職種の 증가현상은 극히 미약한 狀態이다. 一面 당시 敎員이나 宗敎家 또는 記者·藝術家등의 이용율이 官公吏나 銀行·會社員들의 이용율 보다도 훨씬 저조하다는 사실은 상당히 意外의 현상이다. 그들의 독서경향 역시 語學·文學이나 理學·醫學등에 치중되고 있으며 軍事學과 工學分野가 가장 低調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藏書內容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여기서 軍事系統의 閱覽이 가장 부진한 이유는 그들의 圖書가 주로 비밀관계 자료들로서 意圖의으로 비치하지 않았을 뿐더러 民間人으로는 그런 資料를 읽을 必要性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V. 結 論

以上에서 叙述한바 旧韓末以後 日帝統治期間 全朝鮮의 公共圖書館 運營

66) 가. “平壤圖書館의 閱覽現況” 「朝鮮之圖書館」 第3号, 昭和7(1932)年 pp. 32~34.

나. “開城府立圖書館의 概況” Ibid., 第3卷 第2号, 昭和8年(1933) p.26.

다. “咸興府立圖書館의 概況” Ibid., 第3卷 第2号, 昭和8年(1933) p.27.

에 대한 分析 結果 얻어진 사실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一. 旧韓末 新文明의 영향을 받아 朝鮮 各地에서 싹트기 始作하던 近代 圖書館의 設立運動은 「大韓圖書館」과 「大同書觀」을 위시로 점차 發展할수 있는 충분한 要因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日帝의 侵略으로 모두 좌절되고 말았다.

一. 日帝下에 設立된 公共圖書館들은 거의가 우리 겨레의 自主的인 精神에서 設立되기 보다는 日本人의 意圖的인 植民地 政策遂行의 一環으로서 設立된것이 대부분으로 이들은 一般大衆을 위한 圖書館 本來의 機能을 發揮하지 못하였다.

한편 一部 朝鮮人에 의해 設立된 私立圖書館들도 當時의 中日戰爭과 太平洋戰爭등을 거치는 一畊의 戰時體制下에서는 圖書館의 經營과 그 유지가 더욱 어려웠던 實情이었다.

一. 日帝下の 公共圖書館은 私立, 公立, 官立의 順序로 設立되었으며 初期의 私立圖書館의 設立은 朝鮮人보다는 日本人 個人에 의해 먼저 그 出發을 보았다. 따라서 이들 日帝에 의해 設立된 近代圖書館들은 우리 朝鮮人의 要求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必要에 따라 一方的으로 이땅에 심어지게 된것으로 事實上 이들 圖書館들은 設立當初부터 우리 大衆과는 유리된 存在가 되었다.

一. 日帝下 公共圖書館 設立中 가장 私立圖書館 設立에 가장 主体를 이루었던 것은 個人과 鄉校財團 및 地方自治團體이다.

一. 職制上에서는 官立이나 公立圖書館의 경우 그 管理層의 幹部 및 實務職들은 모두가 日本人으로 구성되고 朝鮮人은 대부분 고용원 또는 임시적으로 채용하였다. 결국 이같은 事例는 朝鮮人들이 圖書館에 從事하기는 하나 圖書館 本來의 理論의 知識이나 實務를 익힐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던 것으로 여기서 그들의 植民地的 政策의 意圖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

一. 公共圖書館의 管理職으로서의 館長의 位置는 그 대부분이 專門職이 아닌 行政官吏들로서 任命 또는 겸직되고 있었다. 이러한 實例는 오늘날에도 答습되어 國立中央圖書館과 各市, 道의 圖書館들은 文敎部所屬의 行

政職으로 任命 代置되고 있는 階級을 갖어오게 하였다. 이는 現在도 公共圖書館 發達에 커다란 障礙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서 하루 빨리 제거 되어야 하겠다.

一. 日帝下 公共圖書館 藏書의 主題別 分析에서 대부분의 圖書館이 語學과 文學分野의 圖書는 가장 많이 所藏하고 있으나 특히 軍事系統이나 工學·理學·醫學分野의 圖書는 극히 小量을 보이고 있었다. 이같은 현상은 閱覽者의 讀書傾向 調査에서도 똑같은 反應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와같은 의도는 그들이 軍事秘密을 維持하기 위해 意識적으로 關聯된 資料들을 一切 備置하지 않은데 기인되며, 工學이나 理學, 醫學關係의 資料는 朝鮮人의 技術習得을 꺼리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一. 閱覽圖書의 禁止對象은 격동하는 國內情勢의 變動에 따라 날로 擴大되었으며, 1930年代末부터 1940年代에 접어들어서는 우리나라의 憂國志士나 烈士들의 著述 및 族譜, 그밖에 民族小說이나 朝鮮歷史書, 教科書 등과 같이 조금이라도 民族意識을 고취시키는 資料들은 모두 禁書措置令을 내려 몰수하거나 閱覽을 全面 禁止시키었다.

反面 皇國臣民化를 위한 精神教育書 및 大東亞戰爭을 效果的으로 이끌 어 가는데 必要한 讀書의 普及은 적극 장려되어 館外貸出方法으로서 極大化시켰다.

一. 利用者의 身分別 現況은 無職者와 學生이 最多數이며 農商工業者나 官公吏, 雜業에 屬하는 成人들이 대부분이었다. 反面 銀行員이나 宗教·教育者·職工등의 利用率은 상당히 低調한 現狀을 나타내고 있다.

一. 이와같이 一聯의 官·公·私立圖書館들의 運營은 비록 日帝下에서 設立·存続 또는 消滅되어가는 過程을 거쳤으나 이들 圖書館中 그 一部分이 남아 오늘날의 現代圖書館으로 轉換하는데에 一橋梁의인 契機를 마련하였음은 看過할수 없는 일이다.

또컨대, 日帝 30餘年間に 있어서 公共圖書館의 運營과정은 우리겨레의 立場에서 볼때 圖書館本來의 機能을 다하지 못하고 여러가지 制約속에서 기형적인 過程을 밟아왔으며 日帝의 植民地的 및 帝國主義的인 目標達成을 위한 手段으로서 經營되어 왔기 때문에 正常的인 發展을 이루지 못하

였다.

그러나 우리가 必히 기억해야 할일은 日帝植民地下에서 施行되던 一畊의 여러가지 저해要因들이 解放後 오늘날의 우리 圖書館界에 아직도 잔재하고 있으므로써 公共圖書館의 發達을 不振케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要因들은 하루 빨리 是正해야 될것으로 생각한다.

Study on the Korean Public Libraries under
the period of the Japanese Rule

Po Ok Ki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nalyzed that (1)How the public Libraries under the Japanese Rule since the end of the Yi-Dynasty were repected and generated by the people and (2)How they were organiged and managed. (3)Also it examined that how they affected the development of the libraries of today.

1. The following are the analyzed results:
Three types of the public Libraries under the Japanese Rule for a period of 36 years engaged busily in colonization were Private's Public Libraries, Local Self-Government's Libraries and the Central Governmental Libraries, and were in order established.
2. They were eataablished by individuals, Confucian School Foundation, Young Men's Clubs, School Associations, Korean brethren residing abroad, or The Press Centering around the Local Self-Governments and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3. In 1932 of the period of the Japanese Rule, the number of Libraies gained the summit and reached 80 Libraries. The Public Libraries including the Central Governmental Libraries remained in existence until the end of the War had been kept up the functions of the Libraries, but the Private Libraries operated by the Koreans were very small and poor.

As a result, most of them were closed up and some Libraries transferred their controls to the public. Until the end of the war, only a little

- over 10 Private Libraries were Kept up.
4. From the aspects of it's organization system, the most of their libraries replaced their chief librarians with non-professional county-headmen or Local supporters.
 5. From the aspect of collections, they wate mainly consists of Japanese books for the proper guidance of the public thought based on the ideology of Japanese Rule to Korea and on the industrial promotion rather than books about Koreanology or Western books.
 6. At that time, the Library users were with the jobless men and students as the central figures. And the next ranking by the social position of readers was children, farmers, merchants, industrialists, public servants, miscellaneous and educators.
 7. Their reading tendencies laid stress on linguistics and literature, physical sciences and medicine, While the reading trend of military sciences and medicine, While the reading trend of military sciences and engineering were very inactive. This was because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had not kept the military collections on file. Besides, they were reluctant to make Korean's learn the professional knowledge and so the main reference materials of technology not provited.
 8. Most of the Libraries put practiced in circulation services were very important circulation in withinder of the reading room rather than in outside of the Library building. On the other hand, their circulation services has above came with many limitations.
 9. As stated above, the public Libraries' managements and activitives under the period of Japanese Rule were the way and means to achive the colonial and imperialistic purpose of the Japanese Empire.